



정관수술 '성기능' 감퇴와 무관

의학계 "최근 '장애 유발' 외신 근거없다"

영구피임을 위한 남성의 정관수술과 섹스능력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동안 연구 결론은 정관수술을 받아도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성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성생활에 도움을 받는다는 연구도 많다.

그러나 가끔은 정관수술이 발기불능 등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때마다 관심을 불러 일으키곤 한다.

최근에도 정관수술 후 10년이 지나면 성기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영국의 한 의사 주장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불임시술기관 등에는 이같은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정관수술이 정상적인 성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

으로 입증되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개업의인 리처드 페티박사가 발기가 안되거나 어려운 27~82세의 성불능환자 중 정관수술을 받은지 10년이 지난 4백45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정상인보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현저히 적었으며 특히 65세환자들이 분

비량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로 미루어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중에 성불능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의대 李武相교수(비뇨기과)는 『불임시술이 섹스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20여년전 판정이 끝난 문제』라면서 지난

부인에게 수술비용이 비싸고 복잡한 나팔관수술을 시키면서 자신은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욱 시술자가 줄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신체의 노화현상에 따라 섹스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떨어지고 허리가 아파오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전부 정관수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61년 산아제한운동을 위해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尹仙奎과장은 『정관수술을 해도 성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 되다시피했지만 이번 소동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趙憲注)

82년 비슷한 파문때 대규모 연구...검증 끝난 문제



구별 말고 둘만 남아 잘 기르자



가족계획이 한창이던 70년대와 80년대에는 남성의 영구피임법인 정관수술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억제에 크게 기여했다.

82년에도 비슷한 파문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벤시 알렉산더라는 생리학자가 원숭이를 상대로 정관수술이 생체에 미치는 실험을 한 결과 성생활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세계적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즉각 국제가족계획연맹 등 관련단체는 거액의 연구비를 투입해 영국 인도 중국등지에서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조사연구를 실시했고 정관수술이 성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李교수는 『해마다 1백만명이 정관수술을 받는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정관수술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논문이 1천편이상 발표되었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기적이어서